

남양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주관

이진호 기자 | 승인 2026.06.17 20:53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조안면 정약용편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8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현안과 협의회 운영 사항을 논의했다. 제9대 협의회 임기 막바지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등을 결정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조안면 정약용편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8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남양주시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182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이 보고됐다. 이어 안건 심의에서는 제18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과 차기 제18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안건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내 기초의회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 지방자치 발전 방안, 지역 현안 등을 공유하며 기초의회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시·군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활동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다.

조성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9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우리 남양주시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경기도 의정과 협의회 발전에 위해 노력하신 여러 시·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다”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사람의 주민, 또는 의원이나 시장과 같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열린 정약용편그라운드(정약용선생기념관)는 남양주시에 조성한 청소년·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정약용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차기 제184차 정례회의 개최지를 동두천시의회로 결정했다. 제9대 협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은 남은 기간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진호 기자

